한·일 주거 공간에서의 개인영역 구축에 대한 비교 연구 - 건축과 학생을 대상으로 -

Territorial Disharmony in Occupants When Living Together in South Korea and Japan

박 지 연*
Park, Ji-Yeon

Abstract

According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a resident of the symbols reflects the growing need for housing has risen. Recently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Korea, increased divorce rates, diversification of types of jobs, personal life, due to the typically family-oriented values is not the type of atypical forms of various types of households (a person households, newlyweds, Late Marriage Couples, single parent households, cohabiting, single core, including a disclaimer) is formed, and this trend for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new housing environment is required. In this study, South Korea, Japan, the two countries central to the values of personal life for the area be developed by the individual but in reality did not meet the residential space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action research" living lif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a personal area tend to be aware of. Central values of private life, which amplified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prices as the difficulties in living life the most "private area" Building "area of the discrepancies" and controlled through the building of the reason for the tendency of human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Oriented for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space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In addition, changes in family patterns in Japan and South Korea ahead of the current family patterns by compar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 is trying to think.

Keywords : Korean House, Japanese House, Disharmony, Private Area, Behavior Area, Family Relationship

주 요 어 : 한국 주거, 일본 주거, 영역, 영역의 어긋남, 자신의 영역, 행동범위, 가족관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거주자의 기호를 반영한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진출, 이혼율 증가, 직업유형의 다양화,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전형적 가족(직계형 가족) 유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적 가족 유형(1인 가족, 자녀가 없는 가족, 한-부모가족, 동거, 기러기가족 등)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 경향에 맞는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제반 변화경향 중에서 개인생활중심의 가치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개인 생활 중심의 가치관에 의해 개인-영역의 구축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의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환경행동연구」²⁾를 근거로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형태에서의 개인 영역 구축 경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의식과 행동상의 「개

인영역의 어긋남」이 존재함을 경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영역의 어긋남」이란 인지 상에서 「자신의 영역」³⁾이라고 느끼는 공간과 실제행동 가능한 「자신의 행동」 공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인지 상의 공간이 행동 가능한 공간보다 넓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이하 동거생활)에서의 「영역의 어긋남」이란 동거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는 인지와 행동상의 영역의 어긋남, 즉 차이를 의미한다. 「영역의 어긋남」은 「불편함, 좁음」과 같은 불쾌한 감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접촉, 가족 교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역의 어긋남」은 완전히 해소하고 싶은 요소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레벨의 「영역의 어긋남」인지, 원하지 않은 레벨의 「영역의 어긋남」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 권윤지·강순주(2009). 미래형 소형주택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v.2 (추계)

2) 퍼스널스페이스를 포함해 자신의 영역이라 느끼는 공간(몸의 주변일 수도 있고 인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곳일 수도 있고, 행동과 연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3) 실제로 행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리, 공학박사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거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방법은 「생활방식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사전조사를 통해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에 대해 파악하였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가족 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가족의 공간, 행동영역을 표기한 84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조사의 흐름

표 1.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조사 방법	조사내용	질문내용
	한국	일본			
사전조사	1차 아파트 한 동 중 10세대의 주부가 대답	일본의 주택 - 일본 유학생의 한국집·학생이 대답	방문을 통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주택의 넓이에 대한 만족도 및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경우의 유무 • 「영역의 어긋남」을 느낄 때의 조절법·생활 전반에 대하여 	1.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2차				2. 지금 주거의 넓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3차				3.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본조사	4차	일본의 주택 - 일본 유학생의 한국집·학생이 대답	방문을 통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의 어긋남」을 느낄 때의 조절법·생활 전반에 대하여 	4.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일과 그 예를 들어주세요.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설명 후)
	5차				
	6차				
본조사	한국 건축대학, 대학원 학생 52명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	수업중에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용법에 관한 질문 • 가구와 자신의 공간에 관한 질문 • 자신의 공간에 관한 질문 •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 • 생활방식에 관한 질문 • 공용, 전용에 관한 질문등 	

II. 선행연구의 흐름

1. 일본에서의 환경행동연구^{4),5)}

환경행동연구는 일본 건축계획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도 주거에서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연구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일본의 환경행동연구를 소개한 참고문헌을 인용해 그 정의와 동향에 대해 본 연구와 연관된 일부를 기재한다.

일본어의 「환경행동연구」는 영어의 Environment Behavior Studies를 「환경행동연구」로 직역한 후나코시 쿠니오(舟越國男)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 제창되었다. 「환경행동연구」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환경심리학」, 「인간-환경계」, 「인간환경학」 등이 있으며,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때로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통용되었던 Architectural Psychology에서 유래한 「건축심리」도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로서 고유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인간환경심리학회」가 설립되었다. 1930년대 후반 무렵부터 전개된 니시야마 우조우(西山卯三)에 의한 서민주택에 관한 일련의 방대한 연구는, 그 방법론의 학립, 실태조사의 추적, 계획안의 제시 등 각 측면에 있어, 그 후 일본 건축계획학의 기초를 쌓아올려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 환경행동연구의 시점에서 보아도, 이하의 점에서 그의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건축 연구자 및 건축가가 완수해야 할 윤리적 책무로서 저소득 시민계급의 열악한 주택사정을 사회주택문제로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호소와 함께, 이것들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거 현장에서의 실태 관찰, 설문조사, 행동 매핑 등을 통해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주거 공간 사이의 모순을 해명하고, 요구, 생활양식, 잠재적 주의식의 발전방향을 논하였다. 특히, 사람들의 생활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관한 「생활방식(住み方)조사」라고 불리는 이 실증적 연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요시타케 야스미(吉武泰水)등에 의해, 「건축공간과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법칙적인 관계성을 찾아내고, 모순법을 파악하였다」, 「사용되는 방법연구」라고 칭해지는 일련의 연구에 계승 발전되었다. 주된 연구과제로는 [이동]을 주제로, 피난, 선택, 탐색 등에 대해, [환경의 파악]을 주제로 경관, 이미지, 인지 지각, 해방감, 압박감, 분위기 등에 대해, [환경에 대한 의미 부여]를 주제로 영역, 장소, 이바쇼, 이카타 등에 대해, [환경의 사회성]을 주제로 마을 만들기, 근린, 교류에 대해, [사람의 개성]을 주제로 고령자, 인지증 고령자, 치매성 고령자, 장애인, 장애아, 아동, 어린이에 대해, [기초적 개념]을 주제로 행동, 심리, 생태, 생태학, 가치관 등이 있다.

2. 가족을 위한 주거론^{6),7),8)}

시노하라사토코(篠原聡子)들(2002)은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에서 가족형태와 그것에 대응하는 주거의 변화

- 4) 정무웅 · 안경환 · 민병호 · 최윤경 · 이경훈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운당.
- 5) 花里俊廣 · 西出和彦 (1998). 人間環境學-よりよい環境デザインへ. 日本建築學會 編.
- 6) 一番ヶ瀬康子 · 岸本幸臣 · 鈴木 晃 (1996). 家族と住居. 東京大學出版會.
- 7) 井上 俊 · 上野千鶴子 (1996). 「家族」の社學會. 岩波書店.
- 8) 篠原聡子 · 大橋壽美子 · 小泉雅生(2002).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 <自在家族>のための住まい論. ライフスタイル研究會 編著.

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가족 형태별로 주택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주거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 지를 현실에서 검증하면서 새로운 가족과 주거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에 기술한 문헌과 동일하게 가족을 혈연에 국한하지 않고 비혈연이어도 동거함으로써 [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3. 거주 형태의 영역론적 연구⁹⁾

코바야시(小林, 1988) 등은 각주 9)에서 영역의 이론과 방법에 의해 거주 형태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고 장소의 점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장소의 점유는 '영역의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는 '장소의 점유'와 '공유영역'의 조화로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주거의 변화에 대해 장소의 점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영역론적으로 그 가능성을 서술한 것이다.

III.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

1.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조사개요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의 동거생활에 대해 인식조사를 통해 동거 시 거주자가 느끼는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주택 조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2007년 8월에서 2009년 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는 방문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주택을 방문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일본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실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음으로써 동거생활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인식조사는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조사의 내용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주거의 넓이에 대한 만족도, 불편한 사항과 그 이유,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정도와 가족의 친밀도, 생활 방식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택의 넓이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일의 유무에 대해서 한국 주택 조사에서는 80%가 넓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는 연령이 60대 후반인 부부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이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주택 조사에서는 88.2%가 주택의 넓이에 불만이 있었으며 11.8%는 넓이에는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한국 주택 조사에서는 대상자 중 100%

표 2. 「영역의 어긋남」인식 조사 개요

구분	한국주택조사	일본주택조사
조사대상	1차: 아파트 한 동 중 10세대의 주부가 대답 2차: 일본에 있는 한국인유학생의 한국집-학생이 대답	1,2,3차: 일본의 주택-일본 학생이 대답
조사일	1차: 2007년8월 2차: 2007년10월~12월	1차: 2007년10월~12월 2차: 2008년1월~9월 3차: 2008년10월~2009년3월
조사내용	· 지금 주택의 넓이에 대한 만족도 및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경우의 유무 · 「영역의 어긋남」을 느낄 때의 조절법 ·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질문내용	1.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2. 지금 주거의 넓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3.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4.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일과 그 예를 들어주세요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설명 후)	

가, 일본 주택 조사에서도 100%가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

「영역의 어긋남」은 자신의 공간이나 행동영역과 가족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이 겹쳤을 때에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며 그것은 「영역의 어긋남」이라고 판단되고 있었다.

2.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 및 조절을 통한 개인영역 구축의 경향에 관한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1)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에 대한 조사개요

본 절에서는 <동거생활의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에 대해서 동거자간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한다. 조사는 2009년 4월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을 대상, 그리고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에 국내 대학 건축대학원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양쪽 모두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처음 수업에서 자택의 도면을 준비하게 해서, 다음 수업에서 분석표를 기준으로 기입방법, 조사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석표 기입을 진행했다. 분석표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되어있어 수업의 내용을 들으면서 각 항목을 기입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본 조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디포르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의 허가를 받아 학생들이 그려준 도면을 다시 그렸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 내 주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영역의 어긋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표 3. 조사의 개요 및 내용

조사대상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	한국 건축대학, 대학원 학생 52명
조사일	2009년 4월 16일	2010년 2월 22일
조사내용 및 질문내용	· 주택이용법에 관한 질문 · 가구와 자신의 공간에 관한 질문 · 자신의 공간에 관한 질문 ·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 · 생활방식에 관한 질문 · 공용, 전용에 관한 질문동일	

9) 小林秀樹 (1988). 『領域論による公私文化の研究に向けての方法の検討』.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2)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 및 조절을 통한 개인 영역 구축의 경향에 대한 조사 분석방법

분석표에는 「영역의 어긋남」에의 인식에 관한 질문과 함께 생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5절에서는 분석표의 내용 중에서도 동거생활의 「영역의 어긋남」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가정한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차에 의한 「영역의 어긋남」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자신의 공간에 관한 질문)에 주목해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요소를 조사결과로써 이끌어내어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토대로 <동거생활의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를 이끌어낸다. 또한 도면상의 영역표시를 통해 개인 영역 구축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3) 「영역의 어긋남」의 이유 및 조절을 통한 개인 영역 구축의 경향에 대한 조사결과

대상자의 분석표에서 <표 1>에 기술한 요소에 관한 인식이 높았으며 모든 대상자가 기입하고 있었으므로, 아래 기입한 요소를 기준으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표 1>의 요소 중에서 혼자 있을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로 나눈 이유는 4절의 조사에서 혼자 있을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영역의 어긋남」이 틀리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많으며 주택 속에 있을 때의 사람 수는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4. 분석 기준요소의 인식도

구분	빈도	백분율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	107	94.6%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 영역	108	95.5%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108	95.5%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의 유무	104	92.0%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	102	90.2%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	110	97.3%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110	97.3%
혼자 있는 시간의 유무	110	97.3%

VI.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관한 검토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91.8%가 인식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이를 기준으로 개인 영역 구축의 경향을 검토한다.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이가 실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 분석표에 기입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을 도면에 그려 넣어 그 발현 상태를 검토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 상에 공간의 명칭을 기입한 표를 두어 예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의 명칭을 기입하도록 했다. 영역의 침입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읽기위해서 피험자가 표기한 영역은 피험자가 표기한 대로 기입했다. 또한 각 공간이 공용공간인지 전용공간인지 표시하도록 해서 개인 영역구축을 파악하였다.

1.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1) 일본조사에서 나타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그림 2>와 함께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경우가 73.8%로 많았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넓게 차지해 개인 영역 구축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간을 양쪽에 두는 경우가 63%, 전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28%,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9%를 차지했다.

그림 2. 일본 조사에서의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2) 한국조사에서 나타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그림 3>와 함께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경우가 65%로 많았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넓게 차지해 개인 영역 구축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간을 양쪽에 두는 경우가 50%, 전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21%,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29%를 차지했다.

3) 한국과 일본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에 대한 비교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경우가 일본(73.8%)이 한국(65%)보다 많다. 개인영역에 대해서는 혼자 있을 때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는 일본(9%)에 비해 한국(29%)이 확연히 높으며, 전용 공간에 있는 경우는 일본(28%)에 비해 한국(21%)이 낮다. 또한, 전용,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가 일본(63%), 한국(50%)로 한국이 낮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좁으며, 개인영역을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한국 조사에서의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2. 두 명 이상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1) 일본조사에서 나타난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그림 4>처럼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이 같다(27.8%), 혹은 자신의 공간보다 행동영역이 넓다(29.5%)고 말한 사람이 혼자일 때와 비교해 많은 것으로부터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간을 좁게 인식하거나 행동영역을 자신의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넓게 차지해 개인 영역 구축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간을 공용, 전용 양쪽에 두는 경우가 39%, 전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41%,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20%를 차지했다.

2) 한국조사에서 나타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그림 5>처럼 혼자 있을 때처럼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이 같다(21%), 혹은 자신의 공간보다 행동영역이 넓다(37%)고 말한 사람이 혼자일 때와 비교해 많은 것으로부터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간을 좁게 인식하거나 행동영역을 자신의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넓게 차지해 개인 영역 구축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간을 공용, 전용 양쪽에 두는 경우가 32%, 전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11%,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57%를 차지했다.

3) 한국과 일본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에 대한 비교

두 명 이상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그림 4. 일본 조사에서의 둘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넓은 경우가 한국(42%), 일본(42.7%)로 비슷하다.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이 같다는 경우 일본이 높으며, 자신의 공간보다 행동영역이 넓다는 경우는 한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영역 구축의 경우, 혼자 있을 때와 함께 두 명 이상함께 있을 때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가 일본(20%)에 비해 한국(57%)이 확연히 높으며, 전용 공간에 있는 경우는 일본(41%)에 비해 한국(11%)이 확연히 낮다. 또한 전용,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가 일본(39%), 한국(32%)로 한국이 낮다.

따라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좁으며, 개인영역을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우,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자신의 공간=행동영역)의 편차가 혼자 있을 때보다 크지 않은 것을 보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임을 고려해 자신의 영역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국 조사에서의 둘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3. 혼자일 때의 자신의 공간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1) 일본에서 나타난 자신의 공간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그림 6>처럼 혼자일 때의 자신의 공간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다고 답한 예가 70.4%로 많았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을 인식적으로 좁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공간을 좁히는 것은 동거공간에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공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행위를 통해 「영역의 어긋남」을 완화하고 개인 영역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자신의 공간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그림 7>처럼 혼자일 때의 자신의 공간이 두 명 이상

그림 6. 일본 조사에서의 혼자일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다고 답한 예가 82.5%로 많았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을 인식적으로 좁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공간을 좁히는 것은 동거공간에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공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행위를 통해 「영역의 어긋남」을 완화하고 개인 영역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혼자일 때의 자신의 공간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82.5%

혼자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5%

혼자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12.5%

그림 7. 한국 조사에서의 혼자일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3) 한국과 일본의 자신의 공간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에 대한 비교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이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은 경우가, 일본(70.4%)에 비해 한국(82.5%)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이 공간이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다고 한 경우가 한국(12.5%)에 비해 일본(19.8%)이 높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 자신의 공간을 줄이는 경향이 한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1) 일본에서의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그림 8>처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사람이 55.7%로 많았다. 이로부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행동영역을 넓게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 행동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은 동거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행동영역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이 한계는 동거공간에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자신의 공간과 비교해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경우,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넓다고 답한 사람이 24%

혼자 있을 때와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55.7%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5%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39.3%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영역

그림 8. 일본 조사에서의 혼자일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로 많은 것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을 좁히고 있어도 가족과의 교류 등에 의해 행동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은 같은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해 자신의 영역을 조절,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그림 9>처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사람이 62.5%로 많았다. 이로부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행동영역을 넓게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행동영역을 좁히고 있는 것은 동거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혼자 있을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62.5%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12.5%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
25%

그림 9. 한국 조사에서의 혼자일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

행동영역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이 한계는 동거공간에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게 한다.

또한 혼자 있을 때의 실제의 행동영역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경우,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넓다고 답한 사람이 24명으로 많은 것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을 좁히고 있어도 가족과의 교류 등에 의해 행동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사람은 같은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해 자신의 영역을 조절해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과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에 대한 비교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은 경우가, 일본(55.7%)에 비해 한국(62.5%)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한 경우가 한국(12.5%)에 비해 일본(5%)이 높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 행동영역을 줄이는 경향이 한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관한 분석

구분		빈도 (일본)	빈도 (한국)	백분율 (일본)	백분율 (한국)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45	34	73.8%	65%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16	18	26.2%	35%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 의 차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26	22	42.7%	42%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17	11	27.8%	21%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18	19	29.5%	37%
혼자 있을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	혼자>두 명 이상	43	43	70.4%	82.5%
	혼자=두 명 이상	5	2	9.8%	5%
	혼자<두 명 이상	12	7	19.8%	12.5%
혼자 있을 때와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 영역의 차	혼자>두 명 이상	34	33	55.7%	62.5%
	혼자=두 명 이상	3	6	5%	12.5%
	혼자<두 명 이상	24	13	39.3%	25%

표 6.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근거한 개인 영역 구축에 관한 분석

구분	공용 (일본)	공용 (한국)	전용 (일본)	전용 (한국)	공용, 전용 (일본)	공용, 전용 (한국)
혼자 있을 때	9%	29%	28%	21%	63%	50%
둘 이상 있을 때	20%	57%	41%	11%	39%	32%

VII.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현상은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의해 행해지는 조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1.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및 행동영역의 관계성의 파악 기준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거인과의 영역 공유]로 한다.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할수록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리를 둔다. 따라서 [동거인과의 영역 공유]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이 겹쳐도 좋다고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거인과의 영역 공유]를 기준으로 동거자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과 동거자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에 의한 동거자와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표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과 가족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을 기입하게끔 했기 때문에 가족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을 거의 동일하다고 답하고 있다. 개인이 가족이라 해도 타인의 공간 인식을 아는 것은 어려우며 행동하고 있는 장소가 그 사람의 장소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절에서는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의 가족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을 합해서 [가족의 영역]이라고 정의해, 자신의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과 [가족영역]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족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자신의 공간]이어도 [자신의 행동영역]이어도 공유로 판단한다.

2.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이 다른 가족의 영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함께 있을 때 [좁아진 자신의 공간 및 행동영역]과 [가족관계]를 분석해 보면 표와 같은 세 가지 패턴이 된다.

표 7.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관계성

구분	분류기준	비율	
		일본	한국
母領域共有型	어머니, 또는 어머니적 존재의 영역만을 공유하며 다른 가족의 영역은 공유하지 않음	6.3%	12.5%
領域共有 밸런스型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가족이 많으며 계속 영역이 겹쳐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관계	53.1%	27.5%
母領域共有型	모든 가족에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공유	40.6%	60%

1) [母領域共有型]

[母領域共有型]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적 존재(동거인 중에 주거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며, 다른 구성원들이 영역 공유에 거부감을 덜 느끼는 존재)의 영역만을 공유하며 다른 가족의 영역은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관계에 있어 [어머니적 존재]는 자신이 그 존재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에 「영역의 어긋남」이 없으며 같은 공간에서 영역이 겹쳐도 어느 정도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가능한 존재이다.

[母領域共有型]은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의 영역만을 자

그림 10. 일본 조사에서의 [母領域共有型]의 영역 공유

신의 공간 혹은 자신의 행동영역이 공유하는 형태이다. 대체적으로 각 가정에는 어머니적 존재가 있다. 어머니적 존재란 다른 가족과의 공유를 거부하지 않으며 또한 가족 입장에서 어머니적 존재의 영역과의 공유에는 크게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지 않는다. 그 존재가 일시적일 지라도 가족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 모두 어머니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예보다 자신의 행동영역만을 어머니의 영역과 공유하고 있는 예가 많은 것으로부터 어머니의 영역을 공유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동거에서의 「영역의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母領域共有型]의 경우는 어머니의 영역만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다른 가족의 영역과의 공유는 더욱 더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가족관계에 의한 동거 공간에서의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母領域共有型]은 가족의 영역이 크게 겹치는 공용공간에 있어서 「영역의 어긋남」을 크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본 [母領域共有型]에서부터 가족관계를 파악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역만을 공유하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된다. 자신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역만을 공유하며 다른 가족의 영역은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母領域共有型]의 경우 개인 영역을 어

그림 11. 한국 조사에서의 [母領域共有型]의 영역 공유

그림 12. [母領域共有型]

머니적 존재의 영역하고만 맞물려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母領域共有型]의 경우 한국(5.3%)이 일본(6.3%)에 비해 적다.

2) [領域共有밸런스型]

[領域共有밸런스型]은 [母領域共有型]보다 공유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가족이 많으며 계속 영역이 겹쳐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영역을 고유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領域共有밸런스型]으로부터 가족관계를 이끌어 내면 자신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역을 공유하며 다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영역을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 형제간의 공유는 동성일 경우가 62.5%, 이성일 경우가 25%, 동성, 이성 양쪽인 경우가 12.5%이다. 동성의 형제인 경우가 이성인 경우의 형제보다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기 쉽다고 느끼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일본 조사에서의 [領域共有밸런스型]의 영역 공유

[領域共有밸런스型]은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의 영역 이외에 한 명 이상의 가족의 영역을 공유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공용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며,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의 영역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자신은 공용공간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어머니, 아버지와 영역을 공유한다.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어머니적 존재가 되어있어 집 안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넓은 경우, 자신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역을 공유하면서 생활한다. 또한, 형제, 할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서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는 공유를 피하는 상대보다 마음을 열고 있다. 이렇듯이 가족간의 관계에 의해 영역 공유의 방식이 변하며 관계를 인식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조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領域共有밸런스型]은 가족의 영역이 크게 겹치는 공용공간에 있어서도 영역 공유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영역의 어긋남」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부터 본 [領域共有밸런스型]으로부터 가족관계를 이끌어내면 자신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역을 공유하고 다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영역을 공유하는 이하와 같은 형태가 된다. [領域共有밸런스型]은 어머니적 존재와 그 외 한명 이상의 가족과 맞물려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領域共有밸런스型]의 경우 한국(34.7%)이 일본(53.1%)에 비해 그 경향이 적다.

3) [領域解放型]

[領域解放型]은 모든 가족에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공유한다. 따라서 [領域解放型]으로부터 가족 관계를 이끌어 내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과 영역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가족관계도가 된다.

형제가 있는 예(60%)에서는 모두 이성형제였다. [領域

그림 14. 한국 조사에서의 [領域共有밸런스型]의 영역 공유

그림 15. [領域共有밸런스型]

共有밸런스型]이 동성 형제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영역 공유형은 성별에 의한 「영역의 어긋남」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領域解放型]은 가족 구성원 전원의 영역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 가족 관계는 자신의 영역을 공유하며 상대방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해 서로의 공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領域解放型]은 가족의 영역이 크게 겹치는 공용 공간에 있어서도 영역 공유를 인정하면서 「영역의 어긋남」을 조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領域解放型]은 모든 가족과 맞물려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領域解放型]은 한국(60%)이 일본(40.6%)에 비해 그 경향이 크다. 이는 한국이 자기의 공간을 지키기 보다 가족과 공유하고 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표 8. 가족관계와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

유형	어머니 영역 공유형		영역 공유 밸런스형		영역 해방형	
정의	가족 중 어머니의 영역만을 공유하는 가족유형		어머니 영역 외에 한 명 이상의 가족의 영역을 공유하는 가족유형		모든 가족의 영역을 공유하는 가족유형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빈도	2	3	17	18	13	31
백분율	6.3%	5.3%	53.1%	34.7%	40.6%	60%

VIII. 결 론

1.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에 대한 일본이 한국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답한 차이를 비교해보면, 일본(73.8%)이 한국(65%)보다 많다. 개인영역에 대해서는 혼자 있을 때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가 일본(9%)에 비해 한국(29%)이 확연히 높으며, 전용 공간에 있는 경우는 일본(28%)에 비해 한국(21%)이 낮다. 또한, 전용,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가 일본(63%), 한국(50%)로 한국이 낮다. 따라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좁으며, 개인영역을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높다고 사려된다.

2. 한국과 일본의 두 명 이상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과 행동영역의 차에 대해 비교해보면 일본에 비해 한국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 좁으며, 개인영역을 공용공간에 두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우,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자신의 공간<행동영역, 자신의 공간=행동영역)의 편차가 혼자 있을 때보다 크지 않은 것을 보면, 두 명 이상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임을 고려해 자신의 영역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 한국과 일본의 자신의 공간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의 차에 대해 비교해 보면,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이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은 경우가, 일본(70.4%)에 비해 한국(82.5%)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이 공간이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보다 넓다고 한 경우가 한국(12.5%)에 비해 일본(19.8%)이 높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 자신의 공간을 줄이는 경향이 한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과 일본의 행동영역과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의 차에 대해 비교해 보면,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은 경우가, 일본(55.7%)에 비해 한국(62.5%)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행동영역이 혼자 있을 때의 행동영역보다 넓다고 한 경우가 한국(12.5%)에 비해 일본(5%)이 높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 행동영역을 줄이는 경향이 한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공용공간에 있어서의 거주형태별 경향은 이하와 같다. [母領域共有型]은 「영역의 어긋남」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領域共有밸런스型]은 영역 공유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영역의 어긋남」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領域解放型]은 영역공유를 인정하며 「영역의 어긋남」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거주형태별 개인영역 구축은 이하와 같다.

[母領域共有型]은 어머니적 존재의 영역하고만 맞물려 구축하고 있다. [領域共有밸런스型]은 어머니적 존재와 그 외 한명 이상의 가족과 맞물려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

다. [領域解放型]은 모든 가족과 맞물려 개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가족 관계에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조절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7.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과 가족의 영역의 조절로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지만 서로의 관계, 예를 들면, 누구의 영역은 공유가 가능하고 누구의 영역은 불가능한지 등을 판단하면서 서로 「영역의 어긋남」을 되도록 느끼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8.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결과이다. 이후,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거에서의 영역성과 가족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1. 권윤지 · 강순주 (2009). 미래형 소형주택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v.2 (추계), 174-179.
2. 정무웅 · 안경환 · 민병호 · 최윤경 · 이경훈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운당.
3. 一番々瀬康子 · 岸本幸臣 · 鈴木 晃 (1996). 家族と住居. 東京大學出版會.
4. 井上 俊 · 上野千鶴子 他 (1996). 「家族」の社會學. 岩波書店.
5. 篠原聰子 · 大橋壽美子 · 小泉雅生 · ライフスタイル研究會 編著 (2002).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 <自在家族>のための住まい論.
6. 飯田詠子 · 藤田みなか · 初見學 (2006). シェア居住から見る都市居住の在り方 その1, 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7. 小林秀樹 (1988). 領域論による公私文化の研究に向けての方法の検討.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8. 澁谷昌三 (2005). 人と人との快適距離 パーソナル・スペースとは何か. NHKブックス
9. 高橋鷹志 · 長澤 泰 · 西出和彦 (2006). 環境と空間. 朝倉書店.
10. 花里俊廣 · 西出和彦 他 (1998). 人間環境學-よりよい環境デザインへ. 日本建築學會 編

접수일(2010. 12. 23)

수정일(1차: 2011. 5. 7, 2차: 2011. 7. 31)

게재확정일(2011. 8. 23)